

서정인의 『달궁』 연구

— 피카라의 전복성과 비도덕적 세계와의 불화

박 희 현*

요약

서정인의 『달궁』에 대한 연구는 실험적인 서사 형식과 서술 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달궁』이 박달막(임인실)이라는 한 여성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소설에 나타난 피카레스크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인실은 비천한 태생의 성적 매력을 지닌 ‘피카라’에 해당하며 한국의 근현대사의 격류에 휘말려 세상으로 내던져진다. 인실은 양부모에게 성과 이름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인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여성은 사회에 의해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찍힌다. 인실의 경우에는 정조 관념을 지니지 않은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인실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 성관념이 통용되지 않는 여성으로 남성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인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남성 중심의 기존 체계에 대한 교란과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실이 마주한 세계는 악당들의 세계로 그녀는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다. 인실의 이명인 “박달막”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연상시킨다. 막달레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성서적 인물로 예수가 일곱 마귀를 쫓아준 바 있다. 인실도 일곱 유형의 악당들과 만나는데 이들은 각계각층의 지도자이자 권력자들로 군인(육군소령, 장교), 종교인, 교사, 기업경영인, 고위공무원, 의사, 학교재단 이사장이다. 이들은 모두 악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인실의 노동력 또는 성을 착취하고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에게 인실은 경제적 약자이며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인실은 이들이 속한 집단에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사회적 존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재로 태어난 이상, 그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악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실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인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적 도리는 지키려 노력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늘 궁핍하고 박복하다. 인실이 도덕적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타락한 세계와 그녀는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인실은 거짓이 범람하는 세계에서 자신다움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이 점에서 인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저항적이며 체제 전복적이다. 인실의 생활은 비천하고 남루했지만 그녀의 삶은 고귀하고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서정인, 피카레스크 소설, 피카라, 가부장제, 악당(villain), 비도덕적 세계, 불화

목차

1. 서론
2. 한국 사회에서의 picara의 전복성
3. 악당들의 세계와 존재의 비화해성
4. 결론

1. 서론

서정인의 『달궁』은 파격적인 서사 구조와 구어 중심의 소설 언어의 활용으로 여러 논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이들은 『달궁』의 주요 서사적 특질로 에피소드의 나열과 삽화적 구성¹⁾, 판소리 사설체²⁾, 그리고 인칭³⁾과 발화의 모호성⁴⁾ 등을 지적하여 왔다. 『달궁』은 에피소드들로 연

1) 김재영, 『서정인 소설 『달궁』의 서술특성과 ‘현실상’』,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김재영은 『달궁』의 이야기들이 작게 조각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조각글’ 형식으로 지칭하고 있다.

2) 김주현, 『서정인 소설 문체의 양면성』,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277-283면 참조.

결되어 있기에 서사 구조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다. 인과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플롯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발화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들이 혼성되고 때로는 중첩되어 발화의 주체(말의 주인)가 모호한 상황들도 나타나 있다.⁵⁾ 이와 같은 소설의 형식들은 『달궁』의 세계를 다층적, 다원적으로 만드는 한편, 독자의 스토리 이해 과정을 방해한다.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궁』이 임인실(박딸막)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소설 『달궁』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격류에 휘말린 채, 세계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의 서사가 인실의 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⁸⁾

-
- 3) 김현은 서정인이 “삼인칭의 소설적 애매성을 교묘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유간접화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현, 『세계인식의 변모와 의미-『강』 해설』, 이종민 엮음, 『달궁가는 길』, 서해문집, 2003, 123-139면 참조)
- 4) 정호용, 『타락한 세계에 대한 비평적 진단-서정인의 『달궁』·『봄꽃 가을 열매』론』, 『작가세계』 통권 제21호, 1994, 78면.
- 5) 서정인 소설의 언어적 특징은 ‘요설체’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형식적으로 등장인물의 몫이 사라져 서술자의 언어가 확대되는 과정이며,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의미가 충돌하면서 빛어 내는 역설과 반어의 미학이 심화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달궁』 이전의 『철쭉제』에서부터 나타나지만 『달궁』 연작에 이르러 더욱 확대, 심화되어 나타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종욱, 『언어의 산상축제-서정인의 『철쭉제』론』, 이종민 엮음, 앞의 책, 147면 참조)
- 6) 서정인의 소설은 독자의 스토리 이해 과정을 방해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어 중심의 언어 사용과 화자의 모호성, 자유간접화법, 파편화된 서사 구조, 단락의 구분 없음과 문장 부호의 미사용 등은 독자로 하여금 글의 정보를 분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인물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일반 소설보다 지연되기는 하지만, 독자의 역할과 참여는 더욱 확대된다.
- 7) 임인실은 양부가 지어준 이름으로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이며, 박딸막은 인실의 아명이다.
- 8) 『달궁』은 〈네거리〉에서의 한 여성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후 〈등장가〉라는 소재목을 가진 글에 처음 인실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등장가’는 조선 후기 억울한 서민의 호소를 읊은 소리를 이르는데, 인실의 마지막 남편인 백열이 장 검사에게 그녀의 일기를 소포로 보낸 뒤,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도입부의 사건을 통해 소설이 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실의 일기가 검사에게 전달되고, 독자가 그

서정인은 2017년에 개정 합본판을 발간하면서 부제를 ‘박달막 이야기’로 설정한 바 있다.⁹⁾ 『달궁』이 박인실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을 작가가 명확히 밝힌 것이다. 소설은 박인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며, 이후 인실의 마지막 남편인 백열이 장 검사에게 보낸 일기를 통해 생전에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인 인실은 피카레스크 소설의 여자주인공인 피카라(picara)에 해당한다. 남성 주인공인 “피카로(picaro)의 행동양식이 주로 훔치거나 상대방 속이기”라면, 피카라는 “타고난 육체적 매력, 즉 성을 이용하여 그녀들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속임수나 사취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⁰⁾ 『달궁』의 인실은 성적(sexual) 매력과 총명함을 지닌 여성으로 그려지며¹¹⁾ 여러 남성들과 동거 또는 결혼 관계를 맺어 상대의 집단(사회)에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인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하며 여러 직업(식모, 여공, 작부 등)을 전전하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에 자주 놓인다. 이 점에서 인실을 피카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카레스크 소설은 “자서전 형식, 회고적 서사시점, 하급 신분의 기회주의적 인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경 등”을 원형적 특질로 가진다. 그 중에서도 “‘피카로’라는 하층신분의 주인공과 자전적 서술 형식은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의 두 가지 축”이다.¹²⁾ 서정인의 『달궁』

너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에서 소설 『달궁』 전체를 인실의 닛두리, 등장가로 볼 수도 있다.

- 9) 서정인은 2017년에 『달궁』(1987), 『달궁 둘』(1988), 『달궁 셋』(1990)의 개정 합본판을 발간하였다. (서정인, 『달궁-박달막 이야기』, 최측의공간, 2017)
- 10) 송선기, 『‘라 로사나 안달루사’: 피카레스크 장르의 범주와 특성』, 『스페인어문학』 제22호, 스페인어문학회, 2002, 353-354면 참조.
- 11)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반반하고 눈에 충기가 있는 데다가, 공부까지 해 냈으니, 미상불 일은 심상치 않게 되었다. (『달궁』, 47면, 이후 작품 인용 시 작품명과 면수만 기재함)
- 12) 김춘진, 『피카레스크 소설의 개인의식과 사회적 갈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5권,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4, 274면.

』은 소외 계층의 여성 주인공(picara)이 등장하고, 자전적 서술 형식인 ‘일기’를 활용하고 있어 피카레스크의 장르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 물론 장르적 특징이 소설에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문학적 의미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장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장르의 형식적 요소는 세계(현실)의 양상, 인간의 어떠한 본질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고 작품의 형상화를 돕는 측면이 있다.

17세기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장르는 “기존 기사 소설의 이상주의 전통과 달리 하층 계급의 실태와 현실을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근대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¹³⁾ 당시 기사 소설, 로맨스가 한창이었던 시대에 스페인 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장르로 피카레스크 소설이 등장했던 것이다. 고귀하고 이상화된 인물(기사, 귀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 속한 악자(picara, picaro)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추잡하고 적나라한 현실 세계의 모습이 비판되고 풍자된다. 현대의 피카레스크 소설에도 악자 주인공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 개인의 욕망과 도덕의 애매모호함 등이 그려진다.¹⁴⁾

이에 본고는 『달궁』이 박인실이라는 비천한 태생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소설 속 피카레스크적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피카라에 해당하는 박인실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성격과 그녀가 사회에서 조우한 여러 계층의 악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달궁』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도덕과 정의의 부재 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13) 권미선, 『여성 피카레스크 소설의 모계전통』, 『외국문학연구』 제3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 34면.

14) 이가형은 “현대의 작가가 피카레스크 소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이 소설의 “다양한 가능성 때문”으로 추정하면서 특히 “피카로로 태어나는, 자아가 강한 현대인이 자기의 정체를 추구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소설 형태가 될 때” 이 소설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이가형, 『피카레스크 소설』, 민음사, 1997, 164면)

2. 한국 사회에서의 *picara*의 전복성

『달궁』은 박달막(인실)의 이야기이다. 박달막은 한국 전쟁(1950.6.25)이 발발하던 때, 일곱 살의 나이로 실종된다. 그녀의 가족들이 대대로 터를 일구며 살아왔던 고향집은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집(가정)이 가족들의 안식처이자 보호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다.

이모는 일곱 살 때 실종되었다. (중략)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해였다. 맥아더 미군 원수의 인천 상륙으로 퇴각로를 차단당한 인민군 패잔병 일부가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후방을 교란하고 있을 때였다. 깊은 산골에서 쫓겨나온 외할아버지 일가는 도시의 남의 집 문간에서 추위에 덜덜 떨었다. 외할머니는 저저바닥 길가에 주저앉아서 푸성귀나 콩나물 같은 것을 받아다 팔기도 하고, 나물을 데쳐서 내다 팔기도 했다. (중략) 큰외삼촌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것이 지난 가을인데, 바로 그날, 외할아버지가 또 군인으로 잡혀 갔다. 그 때 외할아버지의 나이는 마흔이 넘었고, 큰외삼촌은 이십 전이었다. 난리가 나면 나라에서 아무나 나꿔채 가는 모양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겨울을 나고 상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외삼촌은 영영 소식이 없었다. 소식이 없기로는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외할아버지 일가는 햇수로 다섯 해를 걸인처럼 거리를 떠돌았다. 클라크 미군 대장과 남일 인민군 대장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포성이 멎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략) 떠나올 때의 참혹한 꼴이 그곳으로 다가갈수록 선명해졌던 모양이었다. 불타버린 집이야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중략) 외할아버지의 시대가 때 아닌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그는 낫이 나가 버린 산송장이었다. 풍찬노숙, 노두를 헤매 때 그를 버텨 주었던 것이 집 앞에 도달하자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모양이었다. (『달궁』, 45-46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달궁’은 지리산 속 지명으로 인실의 고향이다. 위 인용문에는 인실과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전쟁의 참담함이 서술되어 있는데 의용군으로 끌려간 외삼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마흔이 넘은 인실의 부친은 군인으로 끌려가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다. 이후 피난살이를 하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불타버린 집을 마주했을 때, 인실의 부친은 “뉘이 나가 버린 산송장”이 되어 무너진다. 전쟁이 끝남과 함께 “할아버지의 시대”(인실의 부친, 태숙의 외할아버지)가 종말을 고하고, 가부장제는 망가져버린다. 사실 전쟁은 남성들의 목숨을 대가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남편, 형제들의 죽음과 실종, 부상을 상처로 남겼다. 인실의 가족 역시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살아남기 급급한 나머지 어린 인실을 안전하게 돌보아주지 못한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인실의 출생과 성장과정에는 강건한 남성 보호자가 부재해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아버지로 대변되는 보호자가 무참히 훼손되는 역사 과정에서 인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헤쳐 나간다.

인실은 친부로부터 제대로 된 이름을 받지 못한 채로 실종되며, 양부로부터 임인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그녀는 ‘박인실’이라는 이름을 계약서에 사용했는데 이 이름은 그녀의 불완전한 정체성을 상징한다.¹⁵⁾ 한국의 경우 자식은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가부장제라는 유교적 전통 규범과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내포한다. 하지만 인실은 가부장적 가족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장했으며, 양부의 성을 물려받게 된다. 인실은 가부장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 반면, 여성에게 가해진 여러 굴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녀는 남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물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¹⁶⁾

15) 마땅찮기로는 이름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무리 민적에 올라 있는 이름이지만 양부의 성을 따르기가 싫었다. 나는 박인실이라고 쓰고 도장을 찍었다. (『달궁 셋』, 11면)

16) 피카로들의 행동반경은 자신이 섬긴 주인들과 그들이 수행한 직업에 대한 고찰에 한정되지

인실은 집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처치와 비슷한 여성 인물들도 만난다. 영심은 그녀가 애착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¹⁷⁾ 인실은 영심에게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데 영심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자유였다. 삼종이니 뭐니 해서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른다고 하지만, 선택은 책임이고 자유였다. 사실은 그 여자가 장삼이를 따른 것인지 장삼이가 그 여자를 따른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 여자의 일은 그 여자가 결정했다. 그 여자는 아직 사랑이 뭔지 정이 뭔지 몰랐다. (중략) 시작으로 말하자면야 그 여자는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그 여자는 모험을 시작했고 모험을 시작해서 그 여자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과 자유와 해방이었다. (『달궁 셋』, 70면)

영심은 본인의 판단으로 본가에서 뛰쳐나와 장삼이와 가정을 이룬다. 인실은 이런 영심의 모습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발견한다. 인실은 한 남편과 해로하지 않고 자식을 책임지지도 않지만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한다. 인실은 가정과 남편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여인은 모두 주체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녀들은 남성중심의 기존 체계가 여성들에게 강요한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한다.¹⁸⁾ 하지만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만, 피카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복잡하게 얽힌 사회계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선기, 『『라 로사나 안달루사』: 피카레스크 장르의 범주와 특성』, 앞의 책, 354면)

17) 나는 영심이한테 애착을 느꼈다. 그 애는 나의 동생 같았고 딸 같았다. 나는 그 애에게서 지난 날의 나를 보았다. 그 애는 나와 많이 닮았지만 나는 그 애가 나와 같이 될까봐서 조바심이 날 정도였다. 그 애는 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 애를 애처로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달궁 셋』, 72면)

의견을 내세우는 여성은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쉽다. 피카레스크 소설의 “피카라들은 나름대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하였으며 남성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남성을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수행하여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만든다.¹⁹⁾ 이에 대부분의 피카라들은 창녀로 그려진다. 창녀가 아닐지라도 팜므 파탈(Femme fatale)적인 면모를 지닌 나쁜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머니, 처녀, 창녀로, 이 중에서도 창녀는 “사회 질서에 의해 은밀하게는 고문당하고, 겉으로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녀들의 육체적 자질들은 유용”하며 “한 남성에게 의해 소유되는 경우에만 또는 남성들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이용될 경우에만 가치를 지닌다.”²⁰⁾ 인실도 여타의 피카라처럼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된다. 피카라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한다. 하지만 인실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매력으로 인해 남성들에게 대상화된다.²¹⁾ 남성 인물들은 그녀의 가치를 성적 매력에서 찾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사회)으로 인실을 진입시킨다. 남성 인물들과 여러 차례 인연이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실의 성적 매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성에 대한 관념이 당시의 보편적 여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보수적 성관념은 여성에게

18)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책임과 의무는 가족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지배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종속은 일시적이다. 남자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가구의 우두머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여자아이와 부인의 종속은 평생 동안이다. 딸들은 그들이 부인으로서 한 남자의 지배/보호 아래 들어가야만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더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18, 381면)

19) 송선기, 『스페인 여성피카레스크 소설을 통해 본 남과 여』, 『스페인어문학』 제30집, 스페인어문학회, 2004, 229면.

20)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241-242면 참조.

21) 명불허전이라더니, 이쁘게 생겼네. 식모가 미인이면 뭘한다고? (『달궁』, 168면)

나는 인물이 보통을 넘는다. (중략) 니 형편으로는 얼굴 고운 것이 손해다. 그걸 지킬 만함이 없으니, 니 신상이 고달프잖어. 고운 것이 고운 것을 어찌케 지킨다냐? (『달궁』, 228-229면)

정조의 의무를 강제한다. 인실은 정조, 순결의 의무를 지키려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의 지배적 체계-가부장제, 보수적 성관념-가 인실에게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인실은 고1 때 양부모의 집에서 군인인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하지만 일을 당한 뒤의 인실의 무덤덤한 행동에 삼촌은 당황한다.²²⁾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인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그녀는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오빠로 자라온 임병덕의 고백에 함께 출분한다. 그녀의 이런 행동양상들은 인실이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인실은 정조를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남매로 자란 오빠-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와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이 일로 양부모는 인실을 배은망덕한 인물이라 비난하며 자기 아들의 절도죄를 인실에게 씌워 경찰서에 보낸다. 그리고는 아들(임병덕)과 상의하여 인실을 기도원에 가둔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인실은 피해자로서의 순진함과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녀를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인실은 새로운 집단으로 진입할 때마다 남성의 도움을 받고, 탈출할 때 그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욕(배은망덕한, 화냥년 등)을 듣는다. 인실이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녀가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상대 남성의 속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실이 윤창수와 동거하는 것도 김일웅(김춘보) 이사장과 살림을 차리는 것도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이다. 윤창수는 김사장(황장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었고, 김일웅은 두 아이

22) 삼촌은 뻔뻔하고 능글맞게 나의 팔을 나뻐줬다. 나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모두가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 같았다. 놀라고, 당황하고, 찢찢맨 것은 내가 아니고 그였다. 나는, 새 처럼 몸을 한번 추스린 다음, 초라하게 나자빠진 그를 남겨놓고 사랑방을 나왔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간을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문득 고통스러운 회한을 느꼈다. (『달궁』, 66-67면)

를 되찾으려는 욕심에서 허락한 관계이다. 인실은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²³⁾ 인실은 남성들과 사랑이 전제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사랑을 대가로 한 그 어떤 희생(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도 하지 않는다. 사실 “피카레스크 소설에서는 그 어떤 여인도 이상적인 사랑의 주체들로 그려지지 않는데, 이 여성들에게 사랑은 “거친 현실과 직면하면서 살아야하는 실존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⁴⁾ 다시 말해, 피카라에게 사랑은 생존보다 상위의 가치일 수 없는 것이다.

윤창수는 유부남으로, 인실은 그가 집 나간 전처와 이혼할 때까지 그의 집에서 동거한다. 하지만 윤창수가 전처의 불륜 증거를 잡게 되자 인실은 그와 헤어지려 한다. 인실에게 윤창수와의 동거가 부도덕이었다면 계속 살지 않고 떠나는 것은 도덕이 된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떠나려 했던 것은, 아무리 다급해서 그랬더라도, 부도덕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었다. 달아난다고 내가 여기서 살았던 사실이 지워질 리 없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지금 떠나는 것은 부도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할 수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중한 기회였다. (『달궁 둘』, 13면)

인실은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도덕적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세상살이가 힘겨운 것은 그녀가 완전한 악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피카라이면서도 선한 마음, 도덕적이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려 애쓴다. 인실을 새로운 유형의 피카라로 만드는 것도 이러한 점

23) 나는 애초에 그가 좋아서 그에게 왔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살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윤씨도 마찬가지였다.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사랑 때문에 만나다니, 나는 그런 사랑 몰랐다. (『달궁 둘』, 14면)

24) 송선기, 『스페인 여성피카레스크 소설을 통해 본 남과 여』, 앞의 책, 235면.

에 있다. 악함과 선함의 경계에 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살아나가려 하는 여성이 박달막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박인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실이 특히 정직하거나 의롭거나 결백한 것은 아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그 여자의 주위가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여자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여자는 단순히 그 여자 자신에게 충실했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주장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용기있고 대담하고 심지어는 무모하게 보였다면 그것은 전혀 그 여자의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다. 그 여자가 특히 미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특히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타락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아마 그 여자 자신의 탓일 것이다. 그 여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필자는 그것도 그 여자 탓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만난 세상 탓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만두겠다. 그는 그 여자를 옹호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 그 여자는 그런 것 필요없다. 그 여자를 그 여자대로 보여주는 것이 백차지만 정직이고 도덕이었다. (서정인, 『작가 후기』, 『달궁 둘』, 272-273면)

인실의 삶은 특별히 부도덕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그녀가 내던져진 세계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타락한 세계였다. 거다 러너는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들은 자아의 정의(definition of self) 자체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며, “메리 데일리(Mary Daly)가 말했듯이, 가부장적 사고의 구성물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여성은 ‘실존적 없음’에 부딪힌다”고 말한 바 있다.²⁵⁾ 유교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 인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 남성이 속한 사

25) 거다 러너, 앞의 책, 393-394면.

회에 진입하고 탈출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인실이 세상에 왔다 갔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녀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²⁶⁾ 그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주체적인 삶은 남성중심 체제에 대한 교란이자 저항의 형식을 갖는다. 타인(남성중심)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기존 사회와 체제에 대한 전복이 되는 것이다. 이에 인실의 삶은 기록할 만한 이야기가 된다.

인실의 아명인 박딸막은 마리아 막달레나²⁷⁾를 연상시킨다. 성서적 인물인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자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현재 성녀(성인)로 추앙받고 있다. ‘막달레나’는 지명으로 막달레나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이며 예수는 그녀에게서 일곱 마귀를 쫓아준 바 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라는 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고, 성서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성녀에게 창녀라는 이중적 이미지가 덧붙여졌던 것도 사실이다. 예수의 조력자이자 부활의 최초 목격자임에도 마리아 막달레나는 남성들로 이루어진 12 제자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 존재였다. ‘달궁’을 떠나 세상에 나온 인실도 새로운 유형의 피카라로서 이중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인실은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인 동시에 정조를 지키지 않는 문란한 여성으로 비난받기도 한

26) “이모는 칭찬 때문에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었어. 이모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한 거야. 이모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모가 있는 것을 무시하는 세력을 쳐부셔야 했어. 이모는 기존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구질서를 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구질서의 파괴였어. 남의 집 더부살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혁명이었어.” (중략)
 “누가 이모를 혁명가라고 했니? 이모가 혁명가가 아니라, 이모의 삶이 혁명적이었어.” (『달궁』, 57면)

27) “고모이름을 몰라? 딸막라 마리아는 뭐냐?”

“딸막이는 이모 아명 일거야. 엄마가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모를 분명히 딸막이라고 불렀어. (하략)” (『달궁』, 28-29면)

다. 그녀는 소설에서 일곱 유형의 악인들과 조우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인실이 만난 악인들의 다양한 모습과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악당들의 세계와 존재의 비화해성

『달궁』은 액자 형식의 소설로 인실의 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인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일기의 작성자로서 서술자의 지위 역시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 소설은 조각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 화자가 인실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인물들의 대화에 형식적 구분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단락 나누기와 “ ”와 같은 문장부호로 서술자에 의해 분리 제시되지만, 인실의 일기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소설 속, 인물들의 발화 지위가 비교적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설에서 ‘누가 말하는가’는 서사권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등장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소설 내 지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달궁』에서 인실은 일기의 서술자이기에 그녀가 만난, 다른 인물들의 말을 배제하거나 개입, 변형하여 전달(서술)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조각글들은 악당들의 말로만 온전히 채워져 있다. 이러한 구성과 서술은 악당들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시킨다. 소설은 악당들의 목소리를 주인공인 인실과 동등하게 일기에 담아냄으로써 악당들의 성격과 도덕적 태도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실은 지리산 ‘달궁’에서 태어나, 사회로 나오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다. 인실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곱 악마를 만난 것처럼 일곱 유형의 악당들과 만나고 그들의 집단으로 끼어 들어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실은 악당들의 집단에 진입했다가 탈출하기를 일곱 차례 반복한다.

인실이 만난 인물들은 군인(소령, 장교), 종교인, 교사, 경영인, 고위공무원, 의사, 재단 이사장과 서무과장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이자 권력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실의 노동력 또는 성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모두 위선자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간들로 타인을 착취하는 일에 익숙하다.

인실은 친부의 품이 아닌 장사꾼인 양부의 밑에서 자라나면서 군인인 삼촌을 만난다. 인실은 삼촌이 양부모의 집에 들렀을 때마다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삼촌을 “지식, 용기, 모험, 정의”의 세계와 동일시한다. 인실이 고이 되었을 때 육군소령이 되어 나타난 군인 삼촌은 인실을 성폭행한다. 삼촌은 인실과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수년간 조카로 보아온 소녀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욕망을 실천에 옮긴 파렴치한 인물이다.

군인인 삼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을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줄 여유가 그 때의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삼촌과 삼촌의 세계가 서로 헛갈리는 것에 분개했다. (중략) 그 때, 나는 삼촌의 배반과 파렴치와 부도덕에 숨이 막혔다. (『달궁』, 66면)

인실은 장사꾼인 양부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정직으로 보았지만, 삼촌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한다. 삼촌은 군인이면서 장사를 하고, 국가를 위해 공산당을 잡는다면 개인의 부를 추구하려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정직과 거리가 먼 인간이 삼촌의 본모습이었던 것이다. 인실은 “삼촌의 배반과 파렴치와 부도덕”을 목격하고 분노한다. 인실은 삼촌의 아이를 임신하고 양부모는 머슴에게 억지 자백을 받아내 인실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인실은 독한 약을 먹고 아이를 지운다. 이후 양오빠와 살림을 차린 인실에게 양부모는 배은망덕하다며 아들의 죄도 그녀의 탓으로 돌린다. 양오빠이자 인실의 남편이 된 임병덕은 군대에 가기 전, 그녀

를 기도원에 가둔다.²⁸⁾

인실은 실로암 기도원에서 빠져나와 주천산장에서 일하고 그 곳에서 기도원 이사장(황장로는 범명, 김사장은 속명, 이름 김철복)을 만나 그를 따라간다. 황 장로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순진함과 비열함”, “돈 많은 사람들의 관대함과 오만함”이 함께 존재했는데 이러한 점이 그에게 인간적 활력을 부여해준다. 그는 장로답게 설교와 기도를 잘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다.²⁹⁾

나는 이사장이 악당이라는 것을, 기도원 사무실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알아차렸었다. 기도는 잘 했지만 그는 악당이였다.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엉터리로 꾸며대는 바람에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리고 온 것이 창피해서 그것을 감출라고 나는, 왜 살아 있는 남의 부모를 죽었다고 하느냐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중략) 모르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략) 몰르면 말을 안해야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르지 안지를 누가 아냐? (중략)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한다. 기도는 자주 할수록 좋다. 하느님은 다 알고 용서한다. 사탄의 제자 아니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달궁』 135-136면)

28) 그 집에 내가 끼여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이 악해지고, 나에게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중략) 너는 이미 그 집에 끼여 있었고, 그 집 사람들은 이미 너 때문에 악해졌다. (중략) 악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서 힘이 든다. 너가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달궁』, 102면)

29) 그는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불과 몇 십 년만에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순진함과 비열함이 돈 많은 사람들의 관대함과 오만함과 함께 나란히 있었다. (중략) 그는 장로였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물론 설교와 기도였다. (『달궁』, 133면)

인실은 처음부터 황 장로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황 장로는 기도를 하면서 인실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진실이 없다. 인실은 황 장로의 거짓 기도에 현혹되어 눈물을 흘리고 이 일이 창피해, 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다. 황 장로는 “모르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며, 자신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의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그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하느님은 다 알고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황 장로는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에게 종교란 돈벌이의 수단이며 설교와 기도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사장만큼 악독하거나, 장로만큼 사특하거나, 사장만큼 음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사장을 놔 두고 악당을 없애며, 장로를 놔 두고 사기를 없애며, 사장을 놔 두고 비열함을 없애졌오? 또, 이사장이 없는데 포학이 있으며, 장로가 없는데 술수가 있으며, 사장이 없는데 천박함이 있으리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것들을 때려부술 수 있었오? (『달궁』, 180면)

인실은 황 장로(김사장)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삼 년이나 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한다. 윤창수는 인실의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인실은 황 장로에게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인실은 황 장로가 이사장이자 장로이고 사장인 것은 그가 악독하고 사특하고 음흉하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황 장로는 비열함과 천박함, 술수와 포학 모두를 지닌 인물이다. 황 장로는 인실에게 서울에서 그와 살림을 차리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인실은 거절하고 깡패인 윤창수와 동거를 시작한다.

윤창수는 사립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였지만 시정의 파락호가 되어 나타

난다.

하도 공갈을 받기만 하고 살다 보니, 공갈 한 번 치는 것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공갈을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갈을 치는 것이었다. 공갈을 치는 즐거움은 공갈을 안 당하는 즐거움이었다 (중략) 못 나서 싸구려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싸구려 인생을 사는 것이 못한 것이었다. (중략) 공갈을 칠 줄 모르는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었다. 잘 묵고 잘 살아도 공갈을 못 치면 싸구려냐? 공갈을 못 치는디 어떻게 잘 묵고 잘 살며, 잘 묵고 잘 사는디 어떻게 공갈을 못 치냐? (중략) 저자거리 땅 바다 위에 질편하게 퍼질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공갈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공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선생들은 공갈을 쳤다. 알기 때문이었다. (『달궁』, 204-205면)

윤창수는 선생이었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수 없었고 교직사회의 청탁수수와 같은 부정들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다. 윤 선생의 모친은 인실에게 아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성깔을 부리는 사람이며 원한이 많고 양심이 있어 남녀노소를 몰라 보고 심술을 부리는 성미라고 이야기한다.³⁰⁾ 윤창수는 공갈을 치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공갈을 치며 살아가지 않으면 공갈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공갈을 칠 줄 모르는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라는 것이다. 윤창수는 자신이 피해자이자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 건달이 된다. 타인을 속이고 협박하여 돈을 벌기로 작정한 것이다. 인실은 윤창수와 자신의 “도덕적 형편”(『달궁』, 236면)이 같았다고 말하는데 윤창수가 피카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실은 윤창수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내가 남에게 빼앗긴 것이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30) 비우가 짊어져 원한이 많고, 마음이 좁아서 양심이 깊으니, 그 원한에 양심이 고집이 되고, 그 고집 외고집이 건들기만 하면 오기가 되고 심술이 되어 툭툭 튀어나온다, 때와 장소도 모르고 남녀도 모르고 어른 아도 몰라 보더라. (『달궁』, 230면)

없음을 인실은 알고 있었다. 인실도 자신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윤창수와 헤어진 인실은 황 영감의 손녀 은숙의 소개로 서울의 공장에 취직한다.

인실은 공장에서 하 상무를 만난다. 그는 여공들을 대체가능한 소유물로 여기며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못 살고 그가 잘 살아야 했다. 공장은 그의 것이었다. 그는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여기는 자본주의의 세상이었다. 돈 있는 놈들과 유능한 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었다. 그것이 자유 경쟁이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부도덕했다. 이길 자유만 있었다. (중략) 능력에 따라 위계질서가 분명한 계급사회였다. (중략) 요구를 들어주다니, 그는 우리들을 짓밟지 않을 수 없었다. (『달궁 들』, 38면)

하 상무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며 모든 것을 자유경쟁체제에 포함시켜 생각한다. 그에게 사회란 돈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다. 그런 그에게 생계의 전선에 나선 여공들은 짓밟아야만 하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여공들의 피와 땀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지만 공장이 하 상무의 것이므로 여공들의 헌신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 상무는 인실에게 저녁 약속을 하고 술을 많이 먹은 인실을 데려가 성폭행한다. 인실이 네 달 만에 유산했을 때 하 상무의 상습적인 오입질에 인실이 걸려 들었음을 동료들이 알게 된다. 하 상무는 인실에게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비밀비재함을 알린다. 하 상무 역시 “내놓은 악당”(『달궁 들』, 81면)이었던 것이다. 인실은 하 상무와 그의 부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공제회”를 만든다. 하 상무에게 “공제회”는 노동조합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공장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 그는 여공들에게 노동 선동죄, 국가 산업 방해죄, 이적행위 등의 혐의를 씌워 모임을 와해시킨다. 이 사건으로 인실은 윤선생의

누이인 윤점례의 아현동 굴레방다리의 술집에서 작부로 일하게 된다.

인실은 이 곳에서 목공인 홍형태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형태는 김운도 교수의 모임을 나간다. 하지만 이 모임이 문제가 되어 형태는 비밀경찰에게 잡혀가고, 형태의 대학 동창이자 초급 장교인 우종규에게 형태를 위한 전화를 부탁하게 된다. 이후 둘째의 돌 때, 우종규가 찾아와 전화에 대한 생색을 내며 인실에게 술을 얻어먹고 인실을 뒤킨다. 일 년 뒤 형태가 풀려 나오는데 인실은 그 때 우종규에게 큰 힘이 없다는 사실과 열등감을 준 친구의 부인을 농락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더럽혔음을 알게 된다.³¹⁾ 형태는 가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인실은 형태와 두 아이를 집에 놓고 떠난다.

인실은 공장에서의 일로 김 사장(황 장로)의 조카인 김 국장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그 때 김 국장은 중앙청 문화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으로 있었다.³²⁾ 인실은 형태와 헤어진 후, 김 국장과 동업을 맺는다. 김 국장이 자본을 대고 인실이 술집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 국장은 고위 공무원으로 청렴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돈이 필요하다. 김 국장은 요즘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그 “자신이 부정이요 패륜”인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 했다. 그 “한 사람의 뜻이 곧 전 국민의 뜻”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의와 도덕은 소용이 없고 오로지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³³⁾ 돈을 굶어모으는 것이 세대가 된 현실에서 김 국장은

31)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라. 우 아무개가 초급 장교 쫓짜라 누굴 가두고 풀고는 힘들어도 갇힌 놈 땅바닥 위를 불불 기어가게 만들기는 여반장이다. (중략) 가만 있어라 봐라, 이진 혼련된 조교가 할 일이지, 가냘픈 아녀자가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 놓고 난도질하면서 궁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남의 전문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려 들지 마라. 아무나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남편의 생사安危에 어떻게든 연줄이 닿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다. 나도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원하는 대접을 받았다. (『달궁돌』, 264-265면)

32) 김 사장의 조카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기관, 중앙청에 찾아갔을 때는 감사관, 술집을 차렸을 때는 국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를 보아 그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부자가 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의 희

인실을 앞세워 돈벌이에 나선다. 김 국장은 인실에게 종종 가짜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호는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왜 외치냐? 거짓말이니까 외쳤다. 안 외치면 누가 믿겠느냐? 구호를 믿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구호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에게 그 구호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죄악이 아니냐? 그는 생각이 달랐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거짓말을 했다.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진짜는 쪽 빠지고 가짜들이 설쳤다. (『달궁 들』, 159면)

김 국장은 “구호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어서 외친다고 말한다. 인실은 구호를 외치면 그 구호가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니 그것이 죄악이 아니냐고 묻는다. 김 국장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믿지 않고 있다는 상황마저도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 안에 진짜는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가짜의 유용함을 주장한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짜는 진짜로 보이니 체면이 서고, 신경이 안 쓰여 좋다는 것이다.³⁴⁾ 김 국장은 거짓을 생산하고 가짜의 편리함

망은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요즘 정권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다. 요즘 권력은 국회니 선거니 헌법이니 하는 민주적인 이름들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임명의원이면 어떠냐, 명목만 대의원이고 대변자면 되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았다. 수없이 많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보다는 무지한 한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더 편했다. 그 한 사람의 뜻이 곧 전 국민의 뜻이었다. 그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무엇이나? 돈이었다. 그가 정의를 원하나? 도덕을 원하나? 아니었다. 그 자신이 부정이고 패륜인데 자신을 부정해? 그는 어디다 쓸지도 생각하지 않고 돈을 긁어모았다. 그 밑에서 출세할 사람들은 그를 본받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아마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돈 긁어모으는 것이 풍조가 되고 세태가 되었다. (『달궁 들』, 158면)

34) 가짜 우습게 생각 마,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가짜가 진짜로 보여. 진짜로 보이는 가짜가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 진짜로 보이니까 체면이 서고, 가짜니까 신경이 안 쓰이지. 진

을 누리며 산다. 고위 공무원인 김 국장은 사회 정의와 인류의 가치 따위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그에게는 출세에 도움이 되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할 뿐이다. 인실과 여행을 간 술집 손님들도 김 국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향락만을 누리려 하는 것이다. 손님들과 간 별장 여행이 소문이 나자, 김 국장은 인실을 술집에서 몰아내려 한다.

인실은 김 국장과 싸움에서 하급 강패인 영팔과 장삼을 알게 된다. 인실은 장삼의 부인인 영심의 출산으로 유서경 산부인과에 가게 되고, 이 여자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게 된다. 유서경(을숙)의 집에서 인실은 성웅학원의 이사장, 김일웅(김춘보)을 만난다. 인실은 자신의 두 아이들(지웅이, 지선이)이 성북 고아원에 갔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유서경은 강태철과 불륜관계였고, 김일웅 이사장이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에 인실과 살림을 차려준다. 이 과정에서 인실은 이사장 학교의 서무과장인 정도섭을 만나는데 그는 모략에 능한 사람으로 이사장과 오입 친구이다.

그가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를 우습게 알지 마라. 이사장도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 제돈 제가 쓰면서 이사장이 그에게 사정을 한다면 웃을지 모르지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이사장 믿고 그에게 큰소리칠 생각 하지 마라. 이사장 입장만 거북해졌다. 돈이냐, 색이냐. 이사장은 약은 사람이라 항상 돈을 택했다. 돈 주고 색은 사지만 색 주고 돈은 못 샀다. (『달궁 셋』, 163면)

김춘보는 특하면 아내인 유서경의 속물성을 욕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그 자신도 돈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김춘보와 유서경은 이혼하지 않고 호적상의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강태철과 박인실

짜보다 더 좋아. 진짜가 이런 판에 뛰어들면 거추장스러워. (『달궁 둘』, 162면)

은 이 부부 사이에 끼인, 몸밖에 가진 것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다. 애초부터 이들의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사장의 심복인 정도섭은 돈이 곧 권력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남의 돈으로 온갖 권력을 다 누린다. 김춘보는 병수발을 들어준 인실에게 아이들을 찾을 돈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가 죽자 유서경과 정도섭은 서로 손을 잡고 인실을 피의자로 둔갑시킨다. 김 형사는 의붓아버지로 인해 미쳐버린 자신의 누이와 인실이 다투었다고 말하며 인실을 풀어준다.

악당을 상대하면 악당이었다. 악당 될 각오 없이 악당과 맞서나? 강군의 말이 옳았다. 악한과 맞서면 악한이 되거나 악한을 선인으로 맹글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나에게서는 악한을 교화할 힘이 없었다. 그들 속에 남은 것이 불찰이었다. (『달궁 셋』, 201-202면)

인실은 지리산 ‘달궁’의 움막에서 태어나 친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다. 인실이 만난 군인(소령, 장교), 종교지도자(장로, 기도원 이사장), 교사, 기업경영인, 고위공무원, 의사, 재단이사장과 서무과장은 악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은 위선자에 거짓을 일삼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이를 진실로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편익과 이익 전부를 챙기려 한다. 인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그들에게 노동력 또는 성을 빼앗기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인실이 자신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그녀를 부도덕한 인물(배은망덕한), 문란한 여성(화냥년)으로 만들어버린다. 악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부도덕한 일(위선)을 일삼고 불륜과 오입질을 일삼으면서, 인실에게는 이에 대한 멧애를 씌우는 것이다. 악당들에게 인실은 착취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실이 내던져진 세계는 악당들의 세계이다. 인실은 악당들의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김 형사의 누이처럼 미치거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인실은 살아가기 위해 악당들의 사회에 끼어들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정직함과 존엄을 포기할 수 없어 탈출한다. 이 과정의 되풀이가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다.³⁵⁾ 그녀가 벌인 악당과의 싸움에는 항상 승패가 정해져 있었다. 인실이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녀는 타락한 세계에 정착할 수가 없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세계에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이었던 것이다. 인실의 삶은 매우 도덕적이지 않았지만, 타락한 세계에서 자신을 온전히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 인실이 고집했던 인간의 정직성이 그녀를 타락한 세계와 결코 화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인실은 피카리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 했던 투사였다. 그녀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당들의 세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의에 맞선 혁명가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4. 결론

서정인의 『달궁』은 실험적인 서사 형식과 서술 기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본고는 『달궁』의 피카레스크적 요소에 주목하여 이 소설이 인실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비천한 태생의 매력적인 여성인 피카라, 인실의 타락한 세계에서의 고군분투기가 바로 『달궁』인 것이다. 인실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성장했고, 이로 인해 가부장제의 억압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한국의 경

35) 나는 항상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끼어들었다. 나의 탈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빠져나오는 데에 성공했으면, 다음 집단 속으로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끼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나의 탈출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되풀이였다. (『달궁』, 63면)

우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실은 양부모에게 성과 이름을 받는다. 그녀는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예외적 존재로 성장했던 것이다.

인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자기주도적인 삶의 모습들은 그녀를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다.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행동 자체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배와 종속에 대한 거부와 저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창녀 또는 팜므 파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인실은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여타의 피카라처럼 이를 신분 상승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남성 인물들이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인실에게 미모는 독이 든 성배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정조가 곧 목숨이라는 당시 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남성중심의 보수적 성관념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녀는 한 남성을 위해 자신의 정조와 순결을 지킬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남성 지배적인 기존 체계의 보수적 관념과 가치들이 그녀에게 통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실은 불륜, 첩살림, 헐박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피해자로서의 순진함과 순수함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남성이 속한 집단(사회)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인실은 이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그녀에게 사랑은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희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실은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도덕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간직하려 애쓰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삶이 고달픈 것도 그녀가 완전한 악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타락하지 않으려 한다. 악당들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악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떠나기를 일곱 차례 반복한다. 이 과정의 되풀이가 인실의 삶이었던 것이다.

인실은 자신의 아명인 “박팔막”이 연상시키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곱 마귀에 썩었던 것처럼 일곱 유형의 악당들을 만난다. 인실은 양부모의 집에서 고1이 되자마자 군인인 삼촌에게 첫 경험을 빼앗긴다. 이 때의 인실은 어렸고 삼촌의 세계와 삼촌을 분간하지 못한다. 삼촌은 국가를 위한다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려 하고 인실은 삼촌의 파렴치와 부도덕에 분노한다. 양부모들은 인실의 임신을 알고는 머슴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양오빠의 고백에 들은 출분한다. 이에 양부모는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인실에게 모든 원망과 죄를 쏟아 부으며 점점 악해진다.

인실은 기도원에 갇히고 이곳에서 벗어나 황 장로를 따라간다. 황 장로의 본명은 김철복으로 그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설교와 기도의 힘으로 자수성가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순진함과 비열함”, “돈 많은 사람들의 관대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설교와 기도를 제일 잘한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각색된 사연과 거짓말만이 가득하다. 그는 허황된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종교인으로 거짓을 말하고 부귀와 색을 탐한다.

인실은 고등학교 국어선생이었지만 깡패가 된 윤창수와 동거한다. 윤창수는 부패한 교직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날건달의 삶을 선택한다. 윤창수는 공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갈을 친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협박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인실도 자신이 경제적 약자로 공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타인에게 앙갚음하려 하지 않는다. 인실은 유부남인 윤창수와 동거라는 부도덕한 일을 벌였지만 그와 다른 도덕적 선택을 하며 그를 떠난다.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 취직한 인실은 하 상무를 만난다. 그는 여공들을 대체가능한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며 사회를 돈 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체제의 신봉자로 여공들을 짓밟아서 자신의 부를 쌓는 것을 당연시한다. 인실은 하 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하 상무의 오입질은

상습적이다. 하 상무는 인실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위로금의 액수도 본인이 제시한다. 인실은 상무와 부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공제회”를 만드는데 하 상무는 이 모임에 노동 선동죄, 국가 산업 방해죄, 이적 행위의 혐의를 씌워 와해시킨다.

인실은 윤점례의 이현동 술집에서 만난 목수 형태와 결혼식을 올린다. 형태가 속한 모임이 문제가 되어 그는 비밀경찰에게 잡혀가고 형태의 대학동창인 군인 우종규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 이를 빌미삼아 우종규는 인실을 덮치지만 우종규는 형태를 풀어줄 만큼의 힘이 없고 그저 친구의 부인을 농락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우종규는 거짓과 배신을 즐기는 인물인 것이다.

김 국장은 중앙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인실과 술집을 차려 동업한다. 김 국장은 요즘 정권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그 “자신이 부정이고 패륜”인 단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돈을 모으는 것이다. 김 국장은 구호를 외치는 일을 하는데, 인실은 그 구호가 실상은 거짓인데도 그것을 외치면, 외치는 사람에게 옳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인실이 보기에 그것은 죄악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가짜니까 외치는 것이고 외치는 사람들 모두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 자리에 진짜가 나설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짜가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 인실에게 설명한다. 김 국장은 거짓을 생산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편의를 누리며 산다.

인실은 영심의 출산으로 유서경과 얽히게 된다. 유서경의 집에 파출부로 나가고 김춘보(김일웅) 이사장을 만나게 된다. 유서경은 강태철과 불륜관계이고 김일웅 이사장의 남자구실을 무시하며 인실과 살림을 차려준다. 인실은 미국으로 입양된 두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생각에 김일웅 이사장과의 관계를 수락한다. 하지만 이사장이 병에 걸려 죽게 되면서 성웅학원의 서무과장인 정도섭과 유서경이 손을 잡고 고인의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며 그녀를 피의자로 둔갑시킨다. 이들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라

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약속도 헌신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서에서 만난 김 형사는 인실에게서 미쳐버린 누이의 운명을 발견하고 인실을 풀어준다.

인실은 군인(소령, 장교), 종교인, 교사, 경영인, 고위공무원, 의사, 재단 이사장과 서무과장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난다.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이자 권력자라 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악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인실은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는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인실이 지리산에서 나와 부딪힌 세계는 타인의 착취 위에 부를 축적한 악당들이 활개를 치는 비도덕적인 세계이다. 그녀는 악당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집단)에 진입하고 여기서 탈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실은 타락한 세계에 뿌리내릴 수 없다. 인실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비도덕적인 세계에서 자신다움과 인간적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악당들이 판을 치는 거짓의 세계에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그녀는 궁핍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 그녀의 존재와 삶은 전복적 의미를 지닌다. 타락한 악당들의 세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저항한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것이다. 인실의 생활은 비천하고 남루했지만 그녀의 삶은 고귀하고 혁명적이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서정인, 『달궁』, 민음사, 1987.
_____, 『달궁 둘』, 민음사, 1988.
_____, 『달궁 셋』, 민음사, 1990.
_____, 『달궁-박달막 이야기』, 최측의농간, 2017.

2. 단행본

- 이가형, 『피카레스크 소설』, 민음사, 1997.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18.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3. 논문

- 권미선, 「여성 피카레스크 소설의 모계전통」, 『외국문학연구』 제3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0.5, 33-53면.
김재영, 「서정인 소설 『달궁』의 서술특성과 ‘현실성」,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260-276면.
김종욱, 「언어의 산상축제-서정인의 『철쭉제』론」. 이종민 엮음, 『달궁가는 길』, 서해문집, 2003, 140-154면.
김주현, 「서정인 소설 문체의 양면성」, 『어문론집』 제32집, 중앙어문학회, 2004, 271-297면.
김춘진, 「피카레스크 소설의 개인의식과 사회적 갈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5권,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994, 273-302면.
김현, 「세계인식의 변모와 의미-『강』 해설」, 이종민 엮음, 『달궁가는 길』, 서해문집, 2003, 123-139면.
송선기, 「『라 로사나 안달루사』: 피카레스크 장르의 범주와 특성」, 『스페인어문학』 제22호, 스페인어문학회, 2002, 347-364면.
_____, 「스페인 여성피카레스크 소설을 통해 본 남과 여」, 『스페인어문학』 제30호, 스페인어문학회, 2004, 227-246면.
정호웅, 「타락한 세계에 대한 비평적 진단-서정인의 『달궁』·『봄꽃 가을 열매』론」, 『작가세계』 통권 제21호, 1994, 78-91면.

<Abstract>

A study on Seo Jeong-in's novel 『Dall-Gung』
—Disharmony between picara's subversiveness and an immoral
world

Park, Hee-Hyun

The study of Seo Jeong-in's novel 『Dall-Gung』 has been centered on experimental narrative forms and techniques. This paper focuses on the picaresque elements in the novel to highlight that 'Dall-Gung' is an autobiographical story of a woman named Park Dla-mak (Im In-sil). In-sil is a lowborn 'picara' with sexual attraction, and is thrown into the world by the torr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In-sil is named after her adoptive parents' first and last name, which indicates that she has grown out of the fence of kinship-centered familialism and patriarchy. In-sil does not follow the three principles that a woman must follow, and she determines her life independently. Women who express their opinions are stigmatized by society as being alien and threatening. In her case, she is represented as the woman who have no sense of chastity. In-sil is the woman whose male-centered conservative gender notion is not accepted and does not feel very noble and pure love for men. In-sil's attitude like this can be interpreted as disturbance and resistance to the existing male-centered system.

The world faced by In-sil is full of villains, and she struggles within it. In-sil's childhood name, "Park Dal-mak", reminds of Maria Magdalena. Magdalena was a biblical figure who witnessed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nd Jesus exorcised the seven demons for her, In-sil also

meets seven types of villains who are leaders and powerful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such as a serviceperson (major in the army, officer), religious person, teacher, business owner, senior official, doctor, president of the school foundation. They all look like villains, and try not to pay a fair price for exploiting In-sil's labor or sex. To them, In-sil is the economical weak and target of exploitation. In-sil repeats the process of entering and escaping the group to which they belong. Born as a social being, she must belong to somewhere, but she can not settle in a world where villains are playing. In-sil is not a morally perfect person, but she tries to keep the basic principles of man. Because of this, her life is always poor and unfortunate. Unless she gives up her desire to be moral, she can not get along with the corrupted world. In-sil tries not to lose her confidence and humanity in a world full of lies. In this respect, the existence of In-sil is itself resistive and subversive. In-sil's life is humble and poor, but has a noble and revolutionary meaning.

Key words: Seo Jeong-in, picaresque novel, picara, patriarchy, villain, immoral world, disharmony

투 고 일 : 2020년 10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11월 24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12월 26일